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5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5기 훈련팀에서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월 13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북 활동 중인 NGO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팀은 김주완(전산전자공학부 '03), 송강민(글로벌리더십학부 '07), 김성렬(글로벌리더십학부 '07), 이태훈(글로벌리더십학부 '07), 김승환(글로벌리더십학부 '07) 이상 5명으로 구성되었다.

I .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북한은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발표한 기독교박해지수²에서 5년 연속 1위³를 기록했고, 2008년 프리덤 하우스⁴가 발표한 ‘세계 정치적 인권과 시민 자유’ 보고서에서 인권과 자유부분 최하위 국가로 선정되는 등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최대의 식량난 이후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북한을 위해 1995년 즈음부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인권적 도움을 주는 NGO⁵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NGO는 국가 기관과는 달리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간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와 역할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의 자율적 교류 및 협력 관계는 남북간 혹은 북한과 타국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극동아시아 평화 정세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여러 NGO들의 협력을 통해 남북 정부 사이에서 두 정부를 독려하여 평화적 분위기를 고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한 및 국제 NGO를 통해 분단 이후 계속 커져갔던 남북한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

¹ 오픈도어선교회(<http://www.opendoors.or.kr>)는 복음의 제한지역에서 억압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를 돕는 복음주의적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이다. 기독교박해지수의 순위는 매년 법적 종교자유에 대한 부분과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상황 부분, 교회 활동의 자유 부분, 기타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49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겨 결정된다.

³ 북한은 오픈도어선교회에서 실시한 기독교박해지수 조사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

⁴ 미국의 민간단체(NGO)로 미국 및 해외의 민주화 및 독재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2008년 1월 16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조사대상 국가들이 ‘자유국가’, ‘부분적 자유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국가 분류 기준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두 가지 영역을 최상인 1부터 7까지 단계로 나뉘었으며 각 영역 5단계 초과부터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했다.

⁵ 비 정부기구라고도 한다. 국제연합(UN)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이며 국제적으로 대중의 연대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권신장·환경보호·빈곤추방·부패방지 등의 전 인류 삶의 질적 향상 문제에서 임무를 다하며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적대감을 해소하면서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팀은 대북 NGO들이 어떤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활동하며 그들의 성과와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내외 교계가 참고할만한 실용적이며 복음적인 관점의 자료가 부족하다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팀은 각 대북 NGO들의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의 차이, 사업 방법과 그 효과 및 한계,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파악하여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한국교계가 앞으로 대북 NGO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현재 활동에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제언하여 보다 나은 방향의 대북 NGO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조사목적

- 1) 대북 NGO의 성격과 현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정리 및 검토하여 대북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의 추상성과 주관성을 극복하고 실제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 2) 각 대북사업 NGO의 성과와 장·단점 검토를 통해 선교적 통찰력을 획득하고, 부족한 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방안을 구체화 시키고 발전시키도록 제안한다.
- 3) 대북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NGO 실무자 및 북한선교 관심자, 중보기도자들에게 실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고취 시킨다.

3. 조사지역

서울 지역의 대북 NGO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였다. 대부분 대북 NGO의 본부가 서울에 위치하며 지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국외 소재 단체의 경우 역시 서울에 지부가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있다.

4. 조사주제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5. 현장조사기간: 2007년 12월 27일 ~ 2008년 1월 13일⁶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7/12/27- 2008/01/13	서울	대북 NGO (국의 단체) 대북 NGO (국내 단체)	인터뷰, 설문

6. 조사인원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대북 NGO 조사팀⁷ 5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김주완	전산전자공학부(03)	디렉터, 예배부원
2	송강민	글로벌리더십학부(07)	섬김이, 총무부장
3	김성렬	글로벌리더십학부(07)	훈련생, 미디어부장
4	이태훈	글로벌리더십학부(07)	훈련생, 예배부장
5	김승환	글로벌리더십학부(07)	훈련생, 문서부장

⁶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7년 9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⁷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 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 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NKFR은 종족 리서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전제하고, 복음화를 위한 주제별 리서치를 실시한다.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 ① 인터넷 조사: NK조선(www.NKchosun.com),
북한채널(www.NKchannel.org) 외 다수
- ② 문헌 조사:
김강희, 『국내 NGO의 대북지원사업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조용관, 김병로 『북한 한걸음 다가서기』 (서울: 예수전도단: 2002)

(2) 전문가 인터뷰

- ① 한동대학교 Global Edison Academy 김미영 교수⁸(전 NK조선 기자)

2) 현장 조사

(1) 인터뷰

- ① 전문가 인터뷰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명삼 대북사업팀장 외
- ② 일반인 인터뷰 - 서울 신내 영안 교회 한평일 전도사(탈북자 선교 담당) 외

(2) 문헌 조사

- ① 국회 도서관
- ② 통일부 통일교육연구원
- ③ 대북지원 10년 백서(서울: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2005)
- ④ 그 외 관련 문헌 조사

⁸ 한동대학교 Global Edison Academy 김미영 교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기관지 편집장 겸 홍보실장, 한국 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조선일보 편집국 북한담당 기자를 역임한 북한전문가로서 본 조사를 위해 인터뷰하였다.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현장성이었다. 대부분의 대북 NGO들에 대한 자료는 이미 인터넷이나 문헌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만나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는지, 느끼는 보람과 한계점, 정부·시민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생소할 수 있는 납북자 사건, 평화통일교육⁹, 대북 라디오 방송 활동을 하는 단체 등도 조사하여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운동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대북 사업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조사팀은 인터뷰를 하기 전 각 대북 NGO 대표자와 연락을 취하고 각 NGO의 성격에 맞는 질문지를 제공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이렇게 하여 인터뷰 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질문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 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피 면접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의 성과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조사 일정이 연말·연시에 걸쳐 있어서 각 NGO들이 종무식과 시무식, 연말 결산 업무 등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아 조사하기로 계획했던 몇 NGO는 방문할 수 없었다. 둘째, 주로 대북 NGO 대표급 실무자를 만나 인터뷰 하였는데 몇몇 실무자들은 본 조사팀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이고 도식화된 자료에 대한 공개를 회피했다. 셋째, 기독교 이념을 가진 단체 외 타 종교 단체에 대해 많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진 못하여 대북 사업의 내용이 기독교적 이념을 가진 단체의 것으로 편중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 중 두 번째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팀에게 CIAS 국제지역연구 연구원 직함의 명함을 적극 이용한다면 실무자가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터뷰 시 답변자에게 각 연구원의 명함을 제시함으로 공식적인 인터뷰임을 인지시킨다면 보다 학술적이고 구체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번째 한계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늘려 최대한 중립적 위치에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⁹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사장 정현백)에서 주관하는 활동으로 이 단체는 여성의 힘을 모아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위 단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길 바란다.

II. 들어가는 말

남한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NGO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NGO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NGO가 그것인데 남북간의 대치 중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협력하지 못하고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¹⁰.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NGO는 북한의 1995년 큰물 피해¹¹로 인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요청 이후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약 60여 개의 인도적 지원 사업 NGO들이 만들어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¹²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북한에 물자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NGO는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종교박해 등 북한의 비인권적 처사들에 대한 사실들이 전 국민에게 알리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위하여 정치적 성향을 띠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반면 다른 인권 단체는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 중 4대 자유인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극복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도 있다. 이러한 NGO들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거나 북한을 민주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유발, 재외탈북자 구호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¹⁰ 2007년 12월 28일 그리스도대학에서 진행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과의 인터뷰 중 나온 내용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 NGO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북 햇볕정책과 뜻을 같이 하여 일반구호, 개발구호 사업 등으로 북한 정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도왔다. 반면 북한인권운동 NGO는 김정일 정부의 인권유린적 정치를 비판하고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 정책의 투명성과 조건적 제한을 주장하는 활동을 한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는 북한인권운동 NGO가 작간접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NGO에 대해 철저한 규제와 감시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 상황 파악을 위해 방북하려는 인원의 명단을 북측에 보낼 경우 그 중에 북한인권운동에 가담했었거나 그와 관련된 곳에 잠깐이라도 소속되었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인원에 대한 방북이 거절되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본질적으로 함께 행해져야 할 인도적 지원과 인권 운동 활동이 사실상 한 NGO에서 인도적 지원과 인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활동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¹¹ 1995년 북한에 큰 피해를 입혔던 홍수를 일컫는 말로 큰물 피해로 인해 1996년 최대의 식량난이었던 '고난의 행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¹²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NGO단체들의 협의체이며 60개 이상의 NGO가 등록되어 있다. 대북관련 인도적 지원 NGO간의 회의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 지며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 NGO간의 대화의 통로가 된다.

국제 정세가 북한의 반응에 따라 변하고, 남한 정부가 북한을 배제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북 NGO들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팀은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NGO단체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문헌과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 인터뷰를 통해 각 단체의 실제적 활동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10여 년 간의 대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한계점, 보완 사항을 분석하여 좀 더 발전된 방향의 활동을 강구하고 이를 대북 사업 활동을 진행 또는 계획중인 NGO나 선교 단체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가운데 인도적 지원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여 년간 활동해온 단체들의 다양한 한계점과 특징을 비교하여 대북 활동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며 보다 효과적인 대북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북 NGO가 가지는 특징인 인도적 지원 단체와 인권 단체가 함께 활동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 단체와, 인권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는데 이것이 양 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한국 선교계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Ⅲ. 국내 대북 NGO의 이해

1. 대북 NGO의 개요

1) 배경

<표 Ⅲ-1 대북 NGO별 발생 배경>

단체종류	발생배경
인도적 지원 단체	1995년 8월 북한의 수해로 인한 북한에서의 국제적인 지원 호소로 국내에서 많은 수의 단체 발생
인권단체	북한에 인간의 4대 자유가 하나도 안 지켜짐을 보고 순수하게 북한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짐, 김정일 정권의 타도 운동을 통한 북한인권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만들어짐
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	6·25전쟁 당시 납북된 8만여 명의 존재를 알리고자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후 2000년 11월에 결성됨
열린북한방송	폐쇄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남북한간에 어떤 정보라도 서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제는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짐

1995년 8월, 북한에서는 큰물피해로 인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아사자가 백만 명, 인구의 약 5%가 죽는 상황에 이르렀다.¹³ 이로 인해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대북지원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이미 북한 국토의 80%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경작지가 부족하였고 기후적으로도 영농환경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침체로 농업생산에 심한 타격을 받았다. 또한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물품들의 원료 수입이 차단되어 농자재의 적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화 부족에 따른 경화 결재의 어려움,

¹³ 『HUMAN RIGHT WATCH VOL 18 NO3-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 통제와 기아 위기』, 2006, 1p

대외 채무 상환의 불이행에 따른 대외 신용 상실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졌다. 수해 발생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국내민간단체, 국제기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¹⁴ 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94년 평양 제3병원에 의료기기를 지원하였으며, 월드비전은 1994년 황해도 불타산 목장에 황소 60마리와 평양 제3병원에 침상 500개를 지원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1995년 6월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15만 톤의 쌀 지원이 시작되었다. 민간차원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북한에 식량지원 움직임이 일어났었고, 1995년 5월 말에 북한에 옥수수 5백 톤을 지원하기도 했다.¹⁵ 수해를 기점으로 많은 수의 인도적 지원 단체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약 60여 개의 인도적 단체들이 만들어져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오직 휴머니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인권 향상과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1996년에 만들어졌다. 북한민주화위원회(2007년 창립)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2006년 창립) 같은 단체들은 최근에 창립된 단체들로서 김정일 정권 자체를 부정¹⁶하며 북한인권 향상의 열쇠는 북한 정부의 붕괴에 있다라는 사고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6.25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8만 명이 넘는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알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송환을 위해 2000년 11월에 재 결성되었다¹⁷. 열린북한방송은 남북 화해의 시대에 맞춰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생각아래 남북한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하여 그들에게 정보의 자유를 주려는 배경과 목적으로 2005년에 만들어졌다¹⁸.

2) 성격

(1) 인도적 지원

각 단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본 조사팀이 조사한 대부분의 단체는 동포애에 의한 선의의 도움을 준다. 법인으로 신청된 단체는 정부로부터 통일협력기금이라는 지원금이 오지만 후원자의 도움이 절실하며, 후원자들에게 지원 물품이 북한사

¹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 (서울: 늘품: 2005), p 33에서 발췌하였다.

¹⁵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 (서울: 늘품: 2005), p 38에서 발췌하였다.

¹⁶ 단체의 설립목적 중 첫 번째 항목 중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에 자유전사들인 탈북자들이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¹⁷ 6.25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http://625.in>)에서 참조하였다.

¹⁸ 열린북한방송(<http://www.nkradio.com>)에서 참조하였다.

람들에게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매년 방북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그 이후 지금(2008년 1월)까지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는 협력적이었고 북한과는 서로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가며 다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북한인권운동

인도적 지원 단체와는 다르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반대적인 활동을 해서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없고 국민들로부터의 관심도 적은 편이다. 북한의 인권박탈적 사항인 고문, 감금, 정치범수용소, 종교박탈, 여성·아동인권,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검토 등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탈북하여 제 3세계를 떠돌다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재외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신장을 위해 암묵적인 구호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3) 납북자 문제 운동

납북자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이 납치해 간 후 사망했거나 북한에 억류 생존해 있는 자를 말한다.¹⁹ 이들의 수는 약 8 만 명이 넘는다. 북한은 이들에 대해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남한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해결하려고 모색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납북자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면 평화통일의 목적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²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단체인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하며 납북자 문제의 시대적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4) 기타

본 조사팀이 조사한 단체들 중 상위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대북 관련 NGO 는 열린북한방송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있었다. 열린북한방송은 정치적 색을 띄지 않으며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원주의 라디오 방송이다. 남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 3 성까지 방송을 한다. 물질적인 후원이 대부분인 인도적 지원 단체와 인권을 다루는 인권단체와는 다르게 이 단체는

19

²⁰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2004;여름), 224p 참조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정신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아직은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대북 방송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방송을 하고 있다.

IV. 자체 평가 및 향후 계획

1. 실무자의 자체 평가

각 분야별 사업 평가와 한계점에 대하여 NGO 실무자들이 평가하는 것들 중 몇 개 단체의 구체적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적 지원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의 성과는 지원 후의 변화된 분야의 구체적 도식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성과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며 해주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1) 성과

① 일반구호

└ 인도적 지원 NGO를 통한 인식 변화²¹

굿네이버스 대북사업팀 최창수 간사는 2001년부터 시작한 옥아원지 원 사업 초기에 분유 병에 ‘Good Neighbors’ 로고를 삽입했다가 북한 정부로부터 ‘사상적 내용과 영어 문구를 담지 말라’ 는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끊임없는 인도적 지원과 설득으로 현재는 GN(Good Neighbors의 약자)이 적힌 분유병 때문인지 북한 주민들이 굿 네이버스를 남한의 유제품 회사로 착각할 정도라고 한다.

유진벨 황지혜 사무국장 또한 사업 초기 물자를 지원할 때 한글로 된 문구를 모두 지우고 ²²후원자 단체와 이름이 적힌 박스²³를 모두 교체하라

²¹ 본 항목의 인터뷰는 총 두 단체에서 실시하였다. 첫째 단락은 2007년 12월 28일 서울 청파동에 위치한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최창수(남, 대북사업팀 간사)
두 번째 단락은 2008년 1월 7일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유진벨(Eugene Bell) 한국지부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2명으로 다음과 같다. 황지혜(여, 사무국장), 김은영(여, 홍보간사)

²² 남한 물자인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한글 문구를 모두 지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고 지시하는 등 제재가 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2년 뒤에는 패키지에 인쇄하는 모든 문구와 명칭을 허용하고 ‘남한 물건의 품질이 더 좋으니 값싼 중국제는 자제해달라’고 하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각 인도적 지원 NGO 실무자들은 사업 초기에는 북한 정부의 폐쇄성과 남한과의 사상적 차이 때문에 감시와 제재가 심하지만 끊임 없는 지원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그들의 태도를 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이질감과 오해를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 보건 의료 및 복지

ㄱ. 평양어린이심장병센터²⁴

한민족복지재단의 대북실무 김동원 주임은 평양어린이심장병센터(이하 심장병센터)가 설립된 평양의학대학병원(이하 평의대)은 평양 사람들에게 심장 전문 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심장병 센터로 각인되었고 북한 내에 기타 병원²⁵에서는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그 전까진 전무했기 때문에 평의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에 평의대 심장병센터의 혈액정화실에 대한 기사가 실릴 만큼 북한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답했다.

ㄴ. 평양 락랑섬김인민병원 건립²⁶

기아대책의 한명삼 대북팀장은 평양 락랑섬김인민병원의 병원건립 및 병원설립 비용이 약 50여 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의 주된 방법이었던 의료 시설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²³ 유진벨은 물품을 전달만 해주는 역할이란 이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후원자와 후원 단체, 특히 교회와 선교단체 명칭도 모두 패키지 겔 표지에 인쇄한다고 했다.

²⁴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8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김동원(남, 대북실무주임)

²⁵ 북한의 병원 체계는 최하위부터 동네 진료소, 리 단위 인민병원, 군 단위 인민병원, 도 단위 의학대학 병원으로 이루어진다. 평양의학대학병원은 이 중 도 단위 의학대학 병원으로 최상위급 의료체계에 속한다.

²⁶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9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국제기아대책 한국 지부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한명삼(남, 대북팀장)

병원을 지어서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남측²⁷에서 물자와 기술을 지원하고 북측²⁸은 부지와 노동인력을 제공하여 공동 주관 하에 공사를 진행했고 남측 기술진이 북한에서 상주하며 총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초기 병원운영기간(2008~2012년) 동안 북측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조하였다. 이로써 북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격상된 남북 의료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었다고 한다.

ㄱ 의료시설에서의 암묵적 선교 활동²⁹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A단체의 B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C 지역에 보건소들을 설립하고 장사나 친척방문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중국에 나온 북한 사람들을 진료해 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³⁰. 또한 이곳에서는 북한에 방문이 가능한 조선족에게 제자화 양육교육을 하고 있으며 100여 개의 북한 지하교회들을 양육할 리더로 세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선교활동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 내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보다 직접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ㄴ 유진벨의 결핵 퇴치와 패키지 단위의 지원 사업³¹

유진벨 한국지부 황지혜 사무국장은 1997년 북한 당국이 유진벨에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맡아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8년 만인 2005년,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시·군 단위 기초의료 기관인 인민병원에 까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약 20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치료되었으며 40개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지혜 사무국장은 북한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

²⁷ 국제기아대책(건축, 설비), 아주대학교병원(의료시스템), 인정건설(시공), 박영주건축설계사무소(설계)

²⁸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의학협회, 조선아태평화위원회

²⁹ 보안 문제상 본 항목에 대한 조사 일시와 장소, 인터뷰에서 거론된 실제 명칭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CIAS)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³⁰ B 팀장은 원칙상 합법적으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간혹 불법 탈북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요구 할 때도 있어 그들을 대상으로도 치료와 전도 활동을 하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칙상 불법 탈북자들은 보안상 위험하여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³¹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7일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유진벨(Eugene Bell) 한국지부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2명으로 다음과 같다. 황지혜(여, 사무국장), 김은영(여, 홍보간사)

이라고 손꼽히는 결핵퇴치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는 것에 성과적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패키지 단위의 지원 사업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와 종자, 의복, 식료품까지 함께 전달함으로 치료에 수반되는 관리와 요양까지 패키지 단위로 지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의 오용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다량의 물자가 아닌 꼭 필요한 물품만 패키지 단위로 조금씩 의료기관에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③ 농업 개발

ㄱ. 월드비전의 씨감자 사업³²

월드비전 대북사업팀 김혜주 간사는 북한의 국가생산체계인 씨감자 생산사업은 북한 정부와 직접적인 협력 방안으로 매년 남북과학심포지움(민간최초)을 개최해 상호신뢰와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평양·남포 지역뿐만 아니라 개천, 함흥, 정주, 대흥단 등 내륙지방에도 씨감자 사업장을 설치하여 그 동안 내륙지방까지 접근하지 못하던 대북지원 사업의 한계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북한 전체 감자 생산량의 80%가 씨감자생산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기후가 낮고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감자생산의 최적지라 할 수 있는 개마고원 지역인 대흥단 사업장에는 2002년 10월, 김정일위원장이 남한민간단체 지원시설로는 최초로 방문하는 등 북한 당국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ㄴ. 국제옥수수재단 종자·비료 지원 사업³³

농업지원은 북한의 곡물생산 능력을 증진시켜 자립적 곡물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옥수수재단 차정훈 기획홍보부장장은 97년 북한의 요청으로 옥수수 종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슈퍼옥

³²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한국 지부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김혜주(여, 대북사업팀 간사)

³³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7일 서울 창전동에 위치한 국제옥수수재단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차정훈(남, 기획홍보부장)

수수³⁴ 3만 5천여 종을 개발했으며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보다 약 20~30% 정도 수확량이 증산되었다고 한다. 종자 개발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농업과학협력³⁵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 또한 종자와 비료, 기술력 지원으로 같은 비용의 물자지원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농업 개발지원은 북한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④ 교육 지원 및 어린이 계몽 사업³⁶

ㄱ 학용품 지원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공웅재 간사는 2005년 10월 준공한 평양 어깨동무학용품공장을 통해 북한의 소학교 중학교 학생 400만 명 모두가 적어도 한 자루씩 원주필, 수지연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한은 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원료를 지원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학용품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ㄴ 어린이 평화교육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핵심 이념은 남북어린이들 간의 이념적·체질적 동질감 증대이다. 공웅재 간사는 이를 위해 남북어린이어깨동무가 초등학교를 방문해 특활활동(C·A)이나 수업시간을 활용해 북한 사회와 북한 어린이들을 소개하고 북한에 대한 남한사회의 오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로 북한의 생활에 대해 생소해 하며 신기해 한다고 했다. 남북이 다르지만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웅재 간사의 의견이다.

⑤ 수자원 개발

ㄱ 수자원 개발로 인한 인식 변화³⁷

³⁴ 원종에 비해 적은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개량형 옥수수 품종일 일컫는 말

³⁵ 남한이 모든 걸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닌 남북한이 함께 북한 토질과 기후에 최적화 된 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협력 체제

³⁶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8일 서울 송현동에 위치한 남북어린이어깨동무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공웅재(남, 간사)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수자원 개발 사업 초기에 북한은 깨끗한 수자원 관리·개발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³⁸ 연이은 홍수로 인해 우물이나 저수지 등 수자원이 오염되고 상·하수처리 시설이 낙후·훼손되어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기아대책에서 주관하는 지하수 시추 사업은 2006년부터 1년 정도 국토 훼손과 군사적 정보 유출이 된다는 이유로 군부가 반대해 중단 됐었으나 작년인 2007년 기계 수리 요청으로 다시 방북하게 됐었고 그 이후 북한은 수자원 개발에 남한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느껴 협력 사업 제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항상 깨끗한 물이 필요한 북한 의사들은 수자원 개발 사업에 큰 호응을 보였고 당국 실무자들은 수인성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최근 들어 기아대책의 수자원 개발 사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⑥ 기타 - 기독교에 대한 인식 변화³⁹

한명삼 대북팀장은 공식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사업 활동 시에 종교적 색채를 보이거나 선교 활동을 하면 1~2년 간 활동을 중단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북해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식사 기도를 꼭 한다든지, “돌아가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하루는 모니터링 때문에 북한에 방문한 뒤 북한 관계자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는데 북측에서 조금 강압적으로 술을 권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 한 북한 관계자가 “저들은 기독교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는다. 권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라고 말해주었고 오찬이 끝난 뒤 그가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곧은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권주를 말렸다.” 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한명삼 대북팀장은 비록 직접적인 북한 선교는 현실상 할 수 없지만 그렇게나마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보람을 느꼈었다고 밝혔다.

³⁷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9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국제기아대책 한국 지부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한명삼(남, 대북팀장)

³⁸ 국제기아대책 한명삼 대북팀장은 과거 북한 정부는 북한의 환경 보존이 매우 잘 되어있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관리에 대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다분했다고 한다.

³⁹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9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국제기아대책 한국 지부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한명삼(남, 대북팀장)

(2) 한계점

① 조건적·절차적 제한⁴⁰

굿 네이버스 최창수 간사는 남북간의 물적·인적 교류에 조건적·절차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원 사업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운송비 문제에 있어서 인천-남포 경로로 물자를 선박 운송을 하게 되면 그 운송비가 막대해⁴¹ 중국으로 먼저 보낸 후 철도 편으로 평양 등지까지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운송기간이 2~3주로 상당히 길며 차후 물자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잘 배분 되었는지 즉각적인 피드백 하기도 힘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북한에 팩스나 서신 등으로 연락을 취하려면 먼저 남한 담당 청사에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후에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⁴² 그리고 방북을 하려면 통일부를 남북의 여러 기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절차적 제약이 많아 시간적·물질적 소모가 크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말했다.

② 모니터링에 대한 투명성

위의 [사례 1]에서 언급했듯이 신속한 의사소통과 확인절차가 힘들기 때문에 배분이나 정확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물론 모니터링 할 수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도적 지원 NGO들의 입장이지만 모니터링 시 북한에서 지정하는 장소만 방문⁴³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정확한 배분이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완벽히 장담하진 못한다고 한다.⁴⁴

⁴⁰ 본 항목의 인터뷰는 2007년 12월 28일 서울 청파동에 위치한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최창수(남, 대북사업팀 간사)

⁴¹ 최창수 간사는 인천-남포 경로간 선박운송에 대한 특수성과 독점성 때문에 그 비용이 부산-미국 경로의 그것과 비슷할 정도로 비싸다고 증언했다. 한 예로 한국산 시멘트 한 포대 가격과 남포까지 운송비의 비율이 1:1 정도이지만 중국산 시멘트를 구입하여 북한으로 배송할 경우 한국산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나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한다.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⁴² 한 예로 12월 초에 제약 기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기 위해 11월 말에 기술자 초청장을 요청하기 위해 팩스를 보냈으나 방북 예정일 직전까지 답신을 받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

⁴³ 방북한 남한사람들을 통제하는 민족화해협의회에서 방문하는 장소와 시간 모두 결정한다.

⁴⁴ 인터뷰 인용: *굿네이버스 - 구빈 협동 농장에 사료로 옥수수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옥수수 사료

③ 북한 내부의 취약한 인프라⁴⁵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손종도 협력사업팀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평양, 남포 등지 지역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북한 내부의 취약한 인프라 문제를 꼽았다. 현재로선 북한이 내륙 지방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진 않지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도로·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접근이나 지원이 어렵다는 것⁴⁶이 인도적 지원 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④ 재정적 어려움

인도적 지원 NGO가 온전히 민간인이나 기업의 후원으로만 대북지원의 재정을 감당하기엔 그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 통일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NGO에게 주는 남북협력기금⁴⁷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체들의 수가 많아지고 사업이 의료사업, 수질개선사업 등과 같이 규모가 커지는 관계로 재정은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⁴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손종도 협력사업팀장은 과거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정책적 갈등이 생기거나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정세가 불안정해 지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과 민간·기업의 후원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한민족복지재단의 김동원 대북실무 팀장과 유진벨의 황지혜 사무국장은 인터뷰 중 대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알아 갈수록 더 지원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특히 황지혜 사무국장은 최근 북한에

를 북측 사람들이 먹을게 없어서 그걸 먹었다고 했다. 또한 모니터링 하러 가면 북측에서 핑계를 대면서 잘 안 보여준다. *국제옥수수재단 - 옥수수 종자를 1500개의 협동농장에 배분하기 위해 지원했지만 전부 제대로 배분된다고 보긴 어렵다. 북측에선 배분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확인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

⁴⁵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3일 서울 마포동에 위치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손종도(남, 협력사업팀장)

Infrastructure, 산업 기간 시설을 일컫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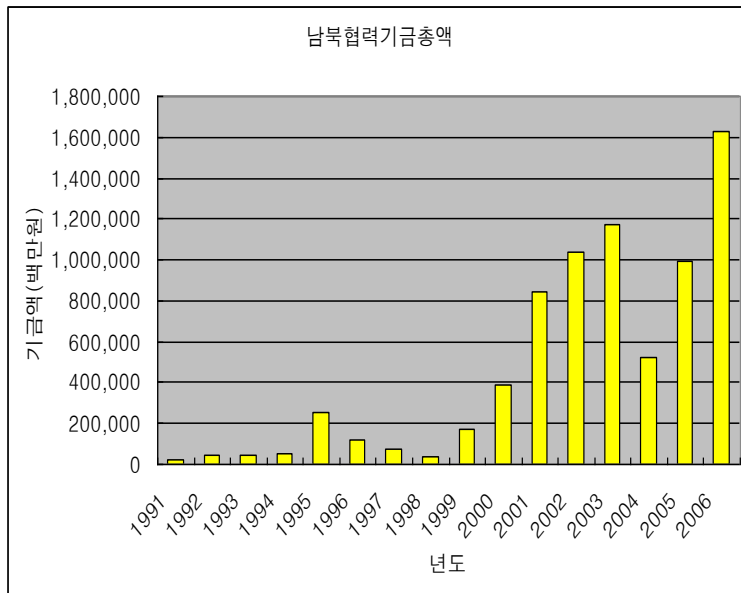
⁴⁶ 평양의 표준 전압은 220V이지만 이마저도 불안정하고 정전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안정적인 전압공급을 요구하는 고가의 의료기기의 경우 지원해준 뒤 얼마 안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내륙지방의 경우 전력난은 더욱 심각해 전력이 꼭 필요한 의료기기나 빵 공장 등의 사업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도적 지원 NGO들의 입장이다.

⁴⁷ 남북한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⁴⁸ 본 조사팀이 조사한 대북관련 인도적 지원 단체 11곳에서 '재정은 사업 활동하기에 충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모든 단체가 '그렇지 않다. 부족하다'라고 답변하였다.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서는 내성결핵⁴⁹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추진 중인데 치료약 개발비용이 일반 결핵 치료약에 비해 400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은 한 NGO만 감당하기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림 IV-1> 남북협력기금총액⁵⁰

⑤ 직접적 복음전파의 어려움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종교적 선교활동은 불법이므로 복음주의적 이념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NGO들의 선교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 활동 외의 선교활동 적발 시에는 수 년간 대북지원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므로 직접적 선교는 불가능 하고 북측 관계자들과의 만남, 물자에 NGO 로 고나 문구 삽입 등으로 아주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

⁴⁹ 유진벨 황지혜 사무국장은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가 6개월 정도 치료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워낙 치료약이 부족하다 보니 투약 도중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 결핵 치료약에 내성이 생긴 결핵균을 내성결핵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핵 치료제도 듣질 않고 이에 맞는 치료제 개발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한다.

⁵⁰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의 남북협력기금조성현황.

북핵 논란이 있었던 2004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이 감소했다.

다.

2) 북한인권운동 사업

(1) 성과

① 국제사회의 관심유발⁵¹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폭로한 ‘수용소의 노래’⁵²는 출간된 후 미국과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 책을 읽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5년 6월 강철환 대표를 만나고자 직접 미국으로 초청하고 측근들에게 일독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⁵³.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대표는 계속되는 북한인권운동에 윗윗 문타폰 특별보고관⁵⁴과 같이 중국, 태국 등지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탈북자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미국 프리덤하우스, 일본 RENK⁵⁵ 등 국제 단체에서도 끊임없는 호응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② 북한 정부의 인권개선 유도⁵⁶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관하여 2005년 2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 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⁵⁷에서는 북한 여성 차별 및 학대와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를 다뤘고 이 회의에 대해 북한 당국은 사실을 왜곡하려 음해하는 회의

⁵¹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11일 서울 동주동에 위치한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강철환(남,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

⁵²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서울: 시대정신: 2004), 강철환 대표가 정치범수용소에서 10년 간 수감되어있다가 출옥한 뒤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뒤 집필한 회고록이다.

⁵³ 요미우리신문, 2005년 5월 28일자 기사 참고.

⁵⁴ 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 UN에서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 중이다.

⁵⁵ Rescue The North Korean People(북한민중 구조 긴급행동 네트워크)

⁵⁶ 2007년 12월 28일 그리스도대학에서 진행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과의 인터뷰 중 나온 내용이다.

⁵⁷ 본 회의에 대한 내용은 북한인권시민연합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을 참조하였다. 참조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kor.nkhumanrights.or.kr/bbs/bbs/board.php?bo_table=past&wr_id=11

라 악평하며 해당 논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3개월 뒤에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가입하고 해당 논제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활동 NGO들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인권개선 촉구를 하진 않지만 북한의 인권상황⁵⁸에 대해 UN 등의 국제여론에 계속해서 보고함으로써 UN이나 국제여론이 그에 대해 북한이 인권정책 변화 및 개선을 하게끔 유도·압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③ 재외탈북자 구호 성과⁵⁹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사업으로 2007년 9월 기준으로 230여명의 재외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에 대한 정보나 구호활동 결과는 개인신상보호를 위해 후원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⁶⁰

2003년 한 탈북여성이 보내온 감사편지

시민연합 귀하 여러분

지금의 이 꿈같은 자유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된 이 시간, 마음에는 늘 소원이었으나 이룰 수 없는 꿈인줄 알았던 오늘을 위해 저도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마음과, 노력과, 물질로 저희들을 말없이 도와준 고마운 시민연합 귀하 여러분들께 진정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조차 생각나지 않으나 저의 고마움이 눈물을 삼키며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시오.

날마다 생명을 앗아가던 식량위기의 시기였던 5년 전 겨우 붙어있는 생명을 유지해보려고 오라는 이 없고 바래주며 다시 오라는 이 없는 타향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자녀들을 만났으니 우리의 몸을 감출 곳이 없었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날마다 또 다른 삶의 방법으로 유지하며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갈 수 없었던 고향이었습디다. 늘 경찰들의 눈을 피해가며 쫓기고 숨기우면서 바라고 소원하였던 것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였습디다.

자유의 생명을 찾게된 이 시간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며 또 꿈만 같아서 제 스스로 실감을 찾아보려하니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잡혀가 죽은 아버지와 지금은 소식도 모르는 감옥에 갇힌 오빠와 또 억울하게 부모가 월남했다고 관리소로 끌려간 아저씨와 언니의 세 자녀들이 이제는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어찌되었지도 모르는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의 나의 이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찢기는 듯 아픕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시간들 속에 말없이 모든 것 버쳐주고 힘써주신 시민연합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대에 보답할 것은 없지만 저의 남은 생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⁵⁸ 여성·아동 박해 문제, 정치범 수용소, 특정 인물에 대한 구타 및 감금, 고문 문제 등을 말한다.

⁵⁹ 본 항목의 인터뷰는 2007년 12월 28일 그리스도대학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이영환(남,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⁶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인권시민연합(<http://kor.nkhumanrights.or.kr>)를 참조

<그림 IV-1 탈북 여성의 감사편지>

(2) 한계점

① 정치적 문제와 오해로 인한 차별⁶¹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 북한과의 정치적 분쟁을 낳고 북한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어떠한 협력이나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점이 가장 힘들다고 설명했다⁶².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오히려 외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정도⁶³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 역시 북한인권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거나 활동성에 대한 오해⁶⁴를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운동 NGO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인도적 지원 NGO의 그것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언급했다. 본 조사팀이 이번 연구를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 할 때에도 북한인권운동 NGO는 인도적 지원 NGO보다 그 수가 훨씬 적었으며 대북지원 10년 백서⁶⁵에는 그 범주를 인도적 지원으로만 두고 있어 그 외의 성격을 가진 (인권단체, 남북자 문제 단체, 평화 운동 단체 등)은 단 한 곳도 소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 단체를 위해 정부에서 발간한 종합 보고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② 활동에 대한 방해 요소⁶⁶

⁶¹ 본 항목의 인터뷰는 2007년 12월 28일 그리스도대학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이영환 (남,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⁶²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경우 2007년 단체의 법인 신청을 했으나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리는 법인 신청 기간을 훨씬 지나도 현재까지(2008년 1월) 아무 연락이 없는 등 암묵적 차별도 있다고 증언했다.

⁶³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현재 영국 정부로부터 북한 아동의 인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 받아 보고서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 보고서는 유럽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물자들이 취약계층인 아동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후 EU에서 대북 아동 지원 사업을 할 때 참고할 사항으로 사용될 것이며 보고서 제작을 위해 영국 정부로부터 한화로 약 천 오백 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⁶⁴ 북한인권운동은 반복 활동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음해 활동이니 중단하라는 등의 오해 여론

⁶⁵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에서 2005년 발간한 10여 년 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NGO에 대해 총망라 하여 출간한 종합 보고서 이다.

⁶⁶ 본 항목의 인터뷰는 2007년 12월 28일 그리스도대학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이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외부로부터의 북한인권활동에 대한 협박이나 방해가 있어 그것들을 수습하느라 사업의 추진 시 진행이 더딘 점이 있다고 밝혔다⁶⁷. 또한 국제 사회로 북한인권문제를 표면화 시켜도 그에 대한 북한의 개선이 없거나 즉각적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데 의욕이 상실될 때가 많다고 증언했다.

3) 납북자·국군 포로 문제 사업⁶⁸

(1) 성과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그 동안 납북사건 관련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2006년 9월에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총 망라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⁶⁹을 발간하였다. 이미일 이사장은 이를 통해 명백하게 6.25 전쟁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한 정부의 조치 요구와 국민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처음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이 발간되자 비로소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 2006년 9월 5일자 노동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상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애당초 ‘납북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극구 부인하며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는 제목과 함께 ‘극우보수세력’으로 몰아 붙였다고 한다. 이미일 이사장은 이것을 미루어 보아 ‘작은 NGO에서 발간한 자료집 하나에 국가적 반응을 보일 정도라면 매우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권』을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영환(남,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⁶⁷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07년 3월 북한의 고문실태에 대해 다룬 ‘고문의 공화국’을 출간하고 UN에 보고한 뒤 2개월 뒤인 5월에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틀 뒤에 홈페이지가 대대적인 해킹을 당해 많은 자료가 훼손되어 자료를 복구하는데 많은 물질적·시간적 노력이 소모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무실로 협박 편지나 독약, 칼, 쥐 머리 등이 배달 되는 등 많은 방해가 있다고 한다

⁶⁸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5일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이미일(여,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이사장)

⁶⁹ 이미일,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총 1153 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집으로 납북자 가족의 직접 증언, 피랍 중 탈출자 직접증언, 납북자 명단, 국내외 납북 관련 문서자료 등 납북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 놓았다.

(2) 한계점

① 정부의 무관심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이미일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전쟁 당시 정부가 혼란의 와중에도 국가적 인명피해라는 인식하에 ‘6.25사변피랍치자명부’를 작성하여 그 존재를 기록으로 남겼으나, 그 동안의 정부에서는 냉전의 논리 때문에 전시 납북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납북자 가족들은 연좌제에 걸려 수 십 년간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통일부에서도 전시 납북자 문제를 자신들의 업무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또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그 동안 통일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경찰청, 국정원, 국가 기록원 등 정부의 모든 단체를 찾아다니며 납치된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어떤 부서에서도 가족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권』이 발간되었을 때 북한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남한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아무런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다.

② 납북자 문제의 특성

6.25 전쟁 납북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북한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납치행위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치 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③ 인적·물적 자원 부족

이미일 이사장은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납북자문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NGO에 대한 후원이 그만큼 미미한 수준이며, 이 일에 참여하는 인력 역시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납북자관련자료 공개를 회피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4) 기타 사업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⁷⁰

① 성과

ㄱ. 북한에 대한 어린이 인식 계몽

김현희 사무국장은 이전에 ‘땅땅이와 승승이’⁷¹라는 인형극을 통해 다수의 어린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미있고 친근한 방법으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형극이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ㄴ. 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 촉구⁷²

김현희 사무국장은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와 북핵실험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성명서를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에 알려 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했다.

ㄷ. 통일교육 확산⁷³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는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를 통해 심층적으로 북한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내용으로는 교육, 가정, 직장,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현희 사무국장은 ‘움직이는 여성통일학교’를 서울과 대전, 경기 지역의 여성 단체들과 연대하여 개최함으로써 여러 지역 여성들에게 통일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ㄹ. 남북 여성 교류⁷⁴

김현희 사무국장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6·15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의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8·15민족통일

⁷⁰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10일 서울 동소문동에 위치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김현희(여, 사무국장)

⁷¹ 2002년 4월 말~5월 초에 상연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

⁷²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11차 2007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7), p 17 인용

⁷³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11차 2007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7), p 24 인용

⁷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11차 2007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7), p 36 인용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대축전(광주)에서 열린 남북여성상봉행사와 3월에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진행 및 남북공동호소문 문건합의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② 한계점

ㄱ 정세 변화에 따른 한계⁷⁵

김현희 사무국장은 남북여성통일행사 등 남북여성교류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세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여성 평화기행 장소가 원래 개성이었으나 북 미사일 실험 발사, 북핵실험 이후 정세의 어려움으로 개성 방문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현희 사무국장은 북핵실험과 같은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참여도 그만큼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2) 열린북한방송⁷⁶

① 성과

ㄱ 국민들의 대북 방송 참여 활성화⁷⁷

민간 대북 방송이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 국민들의 대북 방송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열린북한방송에는 현재 10개의 민간 기관/방송국과 14개의 대학 방송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광희 국장은 이 중 대학 방송국들이 대북 방송 참여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경 없는 대학 방송’⁷⁸ 이란 연합체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ㄴ 북한 동포들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⁷⁹

Daily NK에서는 최근 북한에서 외국의 대북 라디오방송 청취자들이

⁷⁵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11차 2007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7), p 36 인용

⁷⁶ 본 항목의 인터뷰는 1월 3일 서울 신림5동에 위치한 열린북한방송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한광희(남, 국장),

⁷⁷ 열린북한방송, 『북한인권국제포럼: 6자회담과 북한인권』, (서울: 열린북한방송: 2007), p 24 인용

⁷⁸ 2007년 4월 30일 대북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방송국들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북한인권청년학생 연대가 모여 만든 연합체.

⁷⁹ 열린북한방송, 『민간 대북방송 송출의 의의와 그 확대방안』, (서울: 열린북한방송: 2007), p 31 인용

크게 늘고 있으며, 청취행위에 대한 처벌도 약화되고 있다고 복수의 북한내부 소식통과 탈북자들이 증언한 사실을 보도했다. 한광희 국장은 한 북한 주민이 열린북한방송을 통해 북한인권대회에 관한 정보를 듣고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② 한계점

㉠ 대중의 오해와 관심부족

한광희 국장은 예전에 비해 상황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대북 방송을 반체제, 혹은 친북사상 방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이 때문에 열린북한방송이 단체명 간판 조차 설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⁸⁰ 또한 방송에 대한 민간의 관심 부족으로 방송 참여가 적어 프로그램 편성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했다. 한편 한광희 국장은 각 대학의 학생 라디오 방송국에서 본 방송에 대한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북측의 방해

한광희 국장은 북한에서 민간 대북방송에 대해 방해전파를 송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해전파작업은 열린북한방송의 전파가 북한 전역으로 도달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적·물적 자원 부족

한광희 국장은 대북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고백했다. 한광희 국장은 방송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드는 1년 예산은 약 3억원 정도이지만, 후원이 적은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방송 시간을 확대하지 못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2. 향후 계획

⁸⁰ 한광희 국장은 간판을 설치하면 열린북한방송을 대북반체제방송 혹은 친북사상방송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본 조사팀이 인터뷰를 위해 열린북한방송을 찾아가는 데에도 열린북한방송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한 데다가 밖에서 보이는 간판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조사팀이 조사한 NGO들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공통된 입장은 각 NGO별 활동 성과 고유한 사업별 특징은 유지하면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더욱 집중 투자하여 활동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실무자들이 지적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의 체제적 특수성과 남한과의 국가적·정치적 관계로 인한 문제인 만큼 한계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인도적 지원 NGO와 인권운동 NGO의 향후 계획에는 활동 특성상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차기 이명박 정부(이하 차기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보장이라는 조건 하에 인도적 지원은 계속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 NGO들은 차기 정부의 지원 축소나 제약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 방향에 대한 수정이나 사업 규모 감축 등의 변화 모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정책 입장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으므로 차기 정부의 정책적 변화 부분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타 NGO와의 연계방안에 관하여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어 그 기구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지만 각 NGO별 특색과 지원 분야가 구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협조나 인력 협조 등의 방법은 가능 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 연계·협력에 대해선 따로 고려하기 힘들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견해이다.

국내 북한인권 NGO와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차기 정부의 인권 정책계획에 따라 북한인권운동과 납북자 문제에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활동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차기 정부에 대한 협조 요구와 비판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인권 NGO는 쌀, 생필품, 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권개선에 대한 북한 내부 조사를 강화하여 국제사회(UNHCHR⁸¹이나 EU 등)에 알리고 이를 위한 심포지엄이나 국제적 학술 대회를 열어 극에 다다른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같이 하였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대표 이미일 이사장 역시 지난 정부들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차기 정부와 함께 사실규명에 대한 노력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대북 NGO들의 향후 계획에 대한 본 조사팀의 견해와 분석, 제언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 언급하겠다

⁸¹ 유엔인권고등판무관

V. 대북 NGO와 한국 교계의 선교적 협력 방안

1. 대북 NGO와 북한 선교 간의 방해 요소

1) 북한 정세

(1) 종교 활동 박해와 인권 탄압

앞서 조사설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발표한 기독교박해지수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세계 최대의 인권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입고 있다.

사회주의 자체가 ‘종교는 아편’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북한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유독 심하다. 한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의 교회도 김일성 집권 후 집중적으로 탄압 당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김일성은 기독교 세력을 포함한 타 종교들까지 ‘반동적’, ‘반혁명적’, ‘반민족적’ 세력으로 간주하여 종교 제한, 탄압, 말살로 도식화 되는 종교 탄압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전쟁은 기독교를 미 제국주의와 결부시키며 탄압의 계기로 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기독교는 탄압의 정도를 넘어 적재적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한국 전쟁 후 파괴된 종교시설의 복구를 금지했고 종교예식을 반혁명운동으로 규정, 일체 이를 금지하는 3단계 조치를 거쳐 종교를 말살했다. 1990년 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주며 칠골 교회, 봉수 교회 등을 설립했지만 복음중심의 참 교회라고는 보기 어렵다⁸².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도 심각하다. 북한에는 공개처형, 감금, 고문, 언론 탄압 등 여러 인권 탄압 문제가 있지만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대표는 정치범 수용

⁸² 양병희, 『북한 교회 어제와 오늘』 (서울: 국민일보: 2006), p 65에서 인용하였다.

일부 성경에 대해선 배울 수 없고 목회자 또한 공산당에서 선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왜곡된 교리를 펴고 있다.

소에 10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때를 회고하면서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탄압 현실은 지구 상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라고 증언했고 최근 북한에서는 고위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의 수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더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은 정치범의 개념과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수용 당해 강제노역과 고문으로 서서히 죽이고 있다. 재외탈북자⁸³에 대한 인권보장과 구제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이다. 태국의 탈북자 수용소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 곳을 거처온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용소에서의 열악한 상황으로 열병, 식중독, 눈병은 다반사이고 뇌출혈, 결핵 등 중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들은 태국의 수용소 몇 달의 생활이 중국에서의 은둔 생활 10년 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증언한다.⁸⁴ 한편 이러한 북한인권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고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인권이란 말은 남북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 결의한 대북인권결의안에 3번이나 불참 또는 기권하기도 했다⁸⁵. 한편 그 동안 북한인권운동을 극 보수적인 좌파적 행동이며 반통일운동권으로 도매금 지어 관심 갖지 않던 국민의 인식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체적 선교⁸⁶ 관점으로 활동하는 몇몇 인도적 지원 NGO들은 본 조사팀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사업 시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단체 설립 이념에도 상반되고 사업 진행 중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난제라고 밝혔다⁸⁷. 인도적 지원 사업과 함께 북한 선교 활동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선교 활동의 조짐이 보일 경우 북한 사업장에서 추방 당하고 그 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⁸³ 탈북하여 중국, 몽골, 태국 등 제 3국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

⁸⁴ 연합뉴스, 2008년1월 28일자 기사 발췌

⁸⁵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서울: 시대정신: 2004), p 4에서 인용하였다.

⁸⁶ 국제지역연구소, 『총체적 선교 전문가 과정』,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7), p 3 총체적 선교의 의의 인용
복음을 영적인 부분만이 아닌 전인적인 영·혼·육의 회복과 개발, 개선을 관점으로 접근하는 선교 사역 방법.

⁸⁷ 특히 기독교적 이념으로 설립된 NGO인 국제기아대책,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왔다.

사업 환경 등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평가이다⁸⁸. 또한 한국 교계가 적극적으로 북한인권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앞서 ‘II.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맞물려 선불리 나서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1990년대 후반 몇몇 교회가 중국에서 은신 중인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shelter)⁸⁹를 운영했었다. 그러나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대표는 북한 공작원에 의해 쉼터 사역자가 피습 당하거나 한달 사이에 20~30개씩 쉼터가 발각되어 탈북자들이 복송 된 뒤 공개처형 당하는 등 선부른 제외탈북자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 제한적 개방정책

북한은 대외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주로 평양·남포 등 평안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개방을 하고 있다. 그나마 외국 국적을 가진 인원과 외국계 NGO에 대해선 조금 더 개방적이지만 이것도 완전하진 못하다. 본 조사팀이 인터뷰한 인도적 지원 NGO 실무자들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이 많이 취약하여 정작 내륙지방이 개방되더라도 접근과 사업 구축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북한이 좀 더 많은 내륙지방을 개방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NGO들의 내륙 지방으로 접근이 힘들어지고 평양·남포 등지에 사업 지역이 집중되면서 중북·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평양·남포 지역도 인도적 지원 혜택이 필요하지만 북한 전 지역의 주민에게도 골고루 돌아간다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삶과 나아가 선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한적 개방정책으로 현재로선 북한이 좀 더 개방해주길 기다리면서 북한에 남한과의 절충과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영적 방해 요소

영적인 방해 요소로 쉽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예전 보다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세뇌적으로 받는 주체사상 교육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숭배와 충성 교육으로 북한 체제의 허구성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 제

⁸⁸ IV. 자체 평가 및 향후 계획, 1. 실무자 자체 평가, 1)인도적 지원 사업, (2)한계점, ⑤직접적 복음전파의 어려움 항목 참조.

⁸⁹ 탈북자들을 숨겨주고 양육해주는 일종의 은신소 같은 지하 처소이다.

대로 인식하지 못한다⁹⁰. 또한 1992년 식량난이 시작된 이후 1993년 무렵부터 예언, 점, 굿, 손금보기, 꿈 해몽 같은 샤머니즘이 부활하기 시작했다⁹¹. 주민들 속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점쟁이들이 등장했다⁹².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오다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해도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선교적 이념을 가진 NGO의 활동과 목적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영적 견고한 진에 대해 기독교 대북 NGO들의 올바른 인식과 구체적인 분석, 전략이 없다면 그 선교적 영향력과 성과는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인도적 지원의 불투명성

인도적 지원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원된 물자나 개발 지원 등으로 얻어진 복지 혜택의 분배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NGO들은 ‘모니터링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 라는 입장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혜택의 분배가 공정하도록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앞서 IV장 인도적 지원사업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폐쇄적 특수성 때문에 각 NGO별 모니터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완벽히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입장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대표는 인도적 지원의 불투명성은 결국 김정일 정권에 힘을 실어 주고 정권 연장의 발판이 되는 치명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⁹⁰ 한동대학교 김미영 교수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 학교 학생들 중 한 명이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남한에 왔지만 그래도 수령님(김일성)이 밉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해 개인적으로 따끔하게 야단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탈북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40%가 세뇌된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 제1권 제1호』,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6), p 218에서 인용하였다.

⁹¹ 중국선교연구원, <http://www.inbora.com/>에서 김군일, ‘북한에서의 무속의 발흥’에서 발췌하였다.

⁹² 무속신앙의 등장에 대한 김군일 씨의 보다 자세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내가 살던 함경북도 무산 군에서도 94년 4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예언했던 꼬마아이와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했다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할머니, 그리고 1997년에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 등 수많은 자칭, 타칭 예언자들이 등장했다. 또한 돈이나 쌀 등 물질을 받고 점을 봐주는 점쟁이들과 관상가들도 득세했고, 암암리에 직업화되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로 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과 관심 부족

IV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도적 지원 분야를 제외한 북한인권,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평화교육, 방송사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은 판이하게 다르다. 본 조사팀이 인터뷰한 대북 NGO중 인도적 지원 NGO를 제외한다면 정부의 보조나 협조를 받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⁹³. 또한 기업이나 민간으로부터 받는 후원도 인도적 지원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익명을 요구한 한 NGO 실무자는 오히려 이 분야가 통일과 북한 선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남북관계에 악영향만 미치는 극단적 운동권이란 편견으로 한국 기독교계에서 조차 외면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이미일 이사장은 “현 젊은 세대도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는데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관심은 더욱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왜곡되었던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바로 잡으며 화합과 평화를 위해 방송사업과 캠페인·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것 또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남북통일과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이른바 ‘NGO 간의 물질·인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앞서 말한 두 부류의 NGO간 인식 정도와 활동성의 규모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상태 이다.

2. 대북 NGO를 통한 선교적 가능성

1) 북한 선교와 대북 NGO 활동간의 의의

대북관련 NGO 활동은 정부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인도적 지원 접근 및 북한인권운동 등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으로서의 남북교류를 넘어서는 직·간접적 민간교류의 확대로 남북간의 이질감과 오해를 해소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감당할 것이다. 정부는 종교적 색채를 띠고 활동할 수 없다. 물론 대북 NGO도 공식적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낼 순 없지만⁹⁴ 기독교적 이념 하에 활동하고 그 정신을 간접적

⁹³ 본 조사팀이 인터뷰한 총 17개 NGO 중 인도적 지원 NGO가 아닌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방송,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상 5 곳이 이에 해당했다. 주로 뜻 있는 몇몇 민간 기업이나 해외 연구소, 외국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는다고 한다.

⁹⁴ 국제기아대책 한명삼 대북팀장은 선교목적 활동이 발각될 경우 1~2년간 대북사업을 중단 당할 수도 있다

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⁹⁵ 정부나 교계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선교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외국계 인도적 지원 NGO의 수월한 접근성⁹⁶

유진벨 황지혜 사무국장은 유진벨의 경우와 같이 외국계 NGO이면서 관계 실무자 또한 외국 국적일 경우 지역 개방 제한이나 방북 인원 등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남측 대북 NGO보다 적다고 했다⁹⁷. 이런 외국계 NGO는 남한의 경우처럼 민족화해협의회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평양·남포 등지에서 국한적으로 활동하는 타 NGO와는 조금 다르게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내륙 깊숙이까지 진출하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⁹⁸. 아직 의료진 협력사업까지 할 수 없으며 통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측 대북 NGO보다 물품지원과 방북이 보다 수월하고 깊숙한 내륙지방까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외국계 NGO를 통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북한 접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 대북 인도적 지원 NGO와 북한 내부 인식 변화

(1)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

대북 인도적 지원 NGO의 실무자들은 본 조사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초기엔 지원 물품에 대한 한글 상표, 혹은 단체명 문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인도적 지원 1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표나 문구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북한 실무자들이 값싼 중국제 대신 남한 물건을 더 선호하며, 남한의 높은 기술력과 품질에 ‘같은 민족의 것’이라는 자부심까지 느낀다고 한다.

고 했다.

⁹⁵ IV. 자체 평가 및 향후 계획, 1. 실무자 자체 평가, 1)인도적 지원 사업, (1)성과, ⑥기타 항목 참조

⁹⁶ 본 항목의 인터뷰는 2008년 1월 7일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유진벨(Eugene Bell) 한국지부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2명으로 다음과 같다. 황지혜(여, 사무국장), 김은영(여, 홍보간사)

⁹⁷ 유진벨 인세반(Stephen W. Linton, Ph. D.) 회장은 미국 국적 소유자이다. 황지혜 사무국장은 특히 캐나다·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가 비교적 호의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⁹⁸ “왜 외국계 NGO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남측보다 적은가”라는 본 조사팀의 질문에 황지혜 사무국장은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 완전히 자각하게 되면 이것이 체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2) 인도적 지원의 오용과 시장경제 활성화 및 의식 변화⁹⁹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7년 4월 북한민주화위원회 설립 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끝에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방문장소, 시간, 검토 내용 등 모든 것을 북측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투명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고 설사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남한 조사단이 철수하면 다시 분배했던 물자나 장비를 수거해 결국 군 부대나 군수 산하기관, 당·정·중앙기관 간부급 인사들에게 분배된다는 사실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07년 대홍수로 주요 곡물 생산량이 15% 감소했고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곡물 수출을 중단¹⁰⁰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철환 대표는 일반 주민들에게 가야 할 인도적 지원 물자 대부분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¹⁰¹정작 식량·생필품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해 더욱 심각한 생활난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1996년 최악의 식량난을 겪어본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 활성화로 탈출구 찾아 냈고, 북한은 작년 11월 49세 이하 시장활동 금지법안까지 공포할 정도¹⁰²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보안원이 장사활동을 단속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저항하는 바람에 보안원들도 난처해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¹⁰³

(3) 북한의 의식변화와 선교적 가능성 평가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인도적 지원 물자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⁹⁹ 본 항목은 1월 11일 서울 동주동에 위치한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다.

¹⁰⁰ YTN, 2008년 1월 6일자 기사 참조.

중국이 곡물의 수출장려금을 폐지하고 올 1월 1일부터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면서 옥수수나 콩 등 주요 곡물 값이 최고 두 배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¹⁰¹ 한 예로 2007년 12월 6일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보고서에서 탈북하기 전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먹어 본 사람은 7.6%(19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남한에서 지원한 쌀은 총 200만으로 이론상 북한 주민이 7개월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의 대북 식량 지원 취지대로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¹⁰² 북한 당국이 농장과 기업소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본업을 핑개친 채 장사에만 몰두해 경제재건에 장애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¹⁰³ NKchosun.com, 2007년 11월 9일자 경제/경협 칼럼 기사 참고.

않고 식량 수급 사정마저 악화되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절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본 조사팀의 견해이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무작정 배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자립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택하고 있고, 남한에서 많은 물자들이 지원되지만 정작 분배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물자·소식의 유입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던 북한 사회에서 구성원인 국민들의 인식과 고정관념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인도적 지원 NGO들의 지속적인 물자·기술 지원으로 외부세계, 특히 남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전환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북한 체제의 불합리적·비효율적 측면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 의구심과 개혁의지를 갖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동대학교 김미영 교수(전 NK조선 기자, 조사설계서 각주 참조)는 이로 인해 북한 체제가 내부부터 와해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북한 체제가 거짓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북음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올바르게 인식하여 선교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에서 인도적 지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을 통한 북한 내부의 의식변화와 선교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4) 증언을 통한 고찰

본 조사팀은 외부 물류와 대북 NGO 활동의 간접적 영향으로 북한 내부의 의식과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 위해 탈북자 D 씨, E 씨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D 씨와 E 씨는 자신들이 살던 청진 시를 함경북도의 항구 도시이며 일본·중국과의 내륙과 해상을 통한 물류 교류가 많고 중국 국경과 그리 멀지 않아 외국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① 탈북자 D 씨¹⁰⁴ - 청진 시의 변화

청진시는 해양도시이자 공업도시로 1990년대 중반부터 청진 무역항을 통해 일본, 중국과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기관’ 이라고

¹⁰⁴ 보안 문제상 인터뷰에서 거론된 면접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다. D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거주하다가 2004년 탈북하여 2006년도에 남한에 입국했다. 본 항목은 D 씨의 허락 하에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하여 기록하였다.

불리는 무역회사들은 일본산 제품¹⁰⁵을 수입하고 송이버섯이나 게, 새우 같은 고급 식료품을 수출 했다. 또한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승용차¹⁰⁶를 중국에 되파는 중계 무역도 담당했다. 1996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생필품 지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청진시 시민들은 직접 중국에서 생필품을 들여와 장사했다. 이에 북한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허가제품위반행위’를 처벌하려 했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단속과 처벌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¹⁰⁷ 외부 물자는 계속 유입되었고 북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필품 배급 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북한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뒷시장’¹⁰⁸을 활성화시켜나갔다. 결국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은 더욱 표면화되었고 D 씨가 탈북하기 직전, 청진 시는 북한 당국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엇망 진창’이었다고 한다¹⁰⁹.

② 탈북자 E 씨 -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인식 변화 증언¹¹⁰

E 씨는 2000년도 탈북하여 중국에 은둔 생활 중 남한의 열린북한방송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남한에 대한 소식과 실상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남한의 모습은 라디오에서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 결국 E 씨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남한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고 남한으로의 망명을 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E 씨 주변의 탈북자들도 중국 체류 도중 이 라디오 방송을 즐겨 청취했다는 것이다.

¹⁰⁵ 주로 일본제 중고자전거, 승용차, 냉장고, 전기밥솥, 다리미 등 중고 가전제품을 수입했다고 한다.

¹⁰⁶ D 씨는 일본의 토요타, 미쓰비시 자동차는 그 성능이 우수하여 중고라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매우 선호했다고 한다.

¹⁰⁷ D 씨는 청진시 시민들의 생필품 중 70~80%가 중국제품일 정도로 이미 크게 확산되어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위반 행위를 전부 일일이 단속할 수 없었고 설령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제공하면 그냥 넘어가는 등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미미했다고 증언했다.

¹⁰⁸ 북한에서 국민들에게 희소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비로틴 것으로 시민들이 정부규제를 무시하고 생업을 위해 불법적으로 형성한 시장체제를 말한다

¹⁰⁹ 북한에서 금지하는 라디오를 버젓이 집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고, 중국으로부터의 밀수나 마약 밀매도 하는 등 당국의 통제가 거의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¹¹⁰ 보안 문제상 인터뷰에서 거론된 면접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다. E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거주하다가 2000년 탈북하여 2004년도에 남한에 입국했다. 본 항목은 E 씨의 허락 하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기록하였다.

3. 한국 교계와의 협력을 통한 선교전략 도출

1) 중보기도

앞서 대북 NGO와 북한 선교간의 방해 요소... 가장 효과적인 북한 선교 방법은 중보기도일 것이다. NGO와 연합함으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제언해 본다. 정작 교계와 NGO와의 중보기도 연결점은 그다지 없어 보였다.

(1) 사례 1 - 에스더 구국기도회

(2) 사례 2 - PN4N¹¹¹ (The Prayer Network for North Korea Missions)

정작 NGO와는 연계성이 없어 보인다. 상당히 중요한 네트워크인데. 같은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그 필요성을 NGO에 알려 이것을 같이 사업으로도 뚫고 기도로 함께 하고.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어거지로 등실등실한 기도제목이 아닌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놓고 사업을 계획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

(1) 인도적 지원 분야

(2) 북한인권, 납북자

3) 투명성 있는 모니터링과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인권, 납북자)

4)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계몽사업의 균형 유지

5) 교계와 NGO의 연계를 통한 컨퍼런스 열어 선교, 통일의 중요성 인식 교육

(1) 인권 운동쪽에 취약한 활동성을 보이는 교계, 인권 개선 전

¹¹¹ 대표 오성훈 목사. 나라와 민족, 북한을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이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더 많은 북한선교 중보기도자를 세워 동원하며, 전 세계의 북한선교운동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선교중보기도 네트워크이다. 또한 매월 북한기도책자인 『북한사랑』을 출판하고 있다.

문가를 초빙하여 컨퍼런스

인권운동 단체의 설립 목적이 종교색을 안 띄긴 하는 거지만 교계 쪽의 인권운동 참여가 너무 안보인다. 정치색을 띄기 때문일까. 인권운동 전문가를 초빙하여 컨퍼런스, 설명회를 갖는다면 교인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중보, 동원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교계가 앞장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실현해야 할 것.

(2) 남북자문제 표면화

6) 협력 시 주의 사항

(1) 남한에 대한 라진·선봉 경제특구 폐쇄 사례

익명을 요구한 모 NGO 실무자는 북한이 라진·선봉 경제특구를 남한 기업에 대해 배제했던 결정적 요인을 한국 목회자의 의욕을 앞세운 선교 활동 때문이었다고 해석했다¹¹². 그는 북한체제의 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에 대한 폐쇄적인 특성을 인식하여 의욕을 앞세운 선교가 북한 지하 교회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선교의 가능성마저 닫아 버릴 수 있는 등 역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 할 것을 당부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겠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것이 북한 선교이다.

(2) 지혜로운 속도 유지

인권 + 인도를 선불리 진행하면 북한으로부터 거부 당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혜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성과 위주의 사업 진행¹¹³

¹¹² 처음 라진·선봉 경제특구가 개방되자 한국 목회자들이 기업 경영 형태로 진출하여 주민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 김일성 전 주석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당국이 사상점검 차 각 가정 별 불시 검열을 실시했고, 이 때 다량의 성경책, 찬송가 등이 발견되어 그 이후로 라진·선봉 경제특구에 남한국적의 기업인에 대한 출입이 배제되었다고 한다.

¹¹³ 본 항목의 인터뷰는 2007년 12월 28일 서울 청파동에 위치한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명으로 다음과 같다. 최창수(남, 대북사업팀 간사)

굿네이버스 대북사업팀 최창수 간사는 가끔씩 “모니터링과 사업 성과가 분명한 것 같지 않으니 후원을 중단하겠다.” 라는 전화가 걸려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 결과물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 중보기도가 절실한 것이 북한 선교일 것이다. 특히 뚜렷한 결과물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북한 인권사업이나 납북자 관련 사업, 대북방송사업, 평화교육사업 등에 대해 성과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실무자들의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활동에 대한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 (서울: 늘품: 2005)
-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서울: 시대정신: 2004)
- 이미일,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11차 2007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7)
- 열린북한방송, 『북한인권국제포럼: 6자회담과 북한인권』, (서울: 열린북한방송: 2007)
- 열린북한방송, 『민간 대북방송 송출의 의의와 그 확대방안』, (서울: 열린북한방송: 2007)
- 양병희, 『북한 교회 어제와 오늘,』 (서울: 국민일보: 2006)
- 국제지역연구소, 『총체적 선교 전문가 과정』,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7)
-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 제1권 제1호』,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6)
- 요미우리신문, 2005년 5월 28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8년1월 28일자 기사
- YTN, 2008년 1월 6일자 기사
- NKchosun, 2007년 11월 9일자 경제/경협 칼럼
-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http://625.in>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중국선교연구원, <http://www.inbora.com/>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각 NGO 별 homepage web site

<참고자료-1, 대북 NGO 일람>

본 조사팀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대북 NGO들의 간략한 정보를 담았다. 본 일람에 수록된 NGO이외의 대북 NGO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를 참조하기 바란다.

- 1) 인도적 지원 사업
- 2) 북한인권운동 사업
- 3)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사업
- 4) 기타
 - (1) 평화 교육 사업
 - (2)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업

<참고자료-2, 질문지>

본 조사팀이 대북 NGO 실무자들과 만나 인터뷰할 때 사용한 질문지 중 일부를 담았다. 본 보고서에서의 대북 NGO 현황 파악 및 분석 작업은 각 NGO별 질문지를 활용한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1) 유진벨

- 유진벨의 설립 배경과 이념, 목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진벨에서 대북 사업의 편성 정도와 중요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결핵에 대한 지원사업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의 결핵 감염률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로 북한 어느 지역에 대해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으로의 의료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귀 단체는 국제적 NGO인데 한국지부만 대북사업을 합니까?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대북사업 여부가 있다면 예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귀 단체의 개발 중심의 지원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평안도 중심의 인민병원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차후 조금 더 비중을 올리고 싶은 사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유와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이며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 북한의 의료기술 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되며 남한의 의료협력으로 얻어진 의료 활성화 부분과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협력 부분)
- 각 사업별 구체적인 물류 지원에 대한 도식화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 귀 단체에 경험 개발을 추진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있다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남한 정부의 비 협조나 북한 정부의 규제, 자금적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

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바뀐 정권으로 인한 차후 유진벨의 사업 계획의 변화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2) 국제기아대책

- 기아대책에서 대북사업의 편성 정도와 중요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2006년 대비 2007년 북한 개발 사업 예산책정이 두 배이던데 이행된 사업의 확장 정도나 성과,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귀 단체는 국제적 NGO인데 한국지부만 대북사업을 합니까?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대북사업 여부가 있다면 예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아주 많은 분야에 있어 대북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 차후 조금 더 비중을 올리고 싶은 사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이유와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이며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 락랑섬김인민병원에 대해 실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척 정도와 자립형 병원인지 여부 등)
- 주민 이용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면이란 어떤 점이 있을지 예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북한의 의료기술 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되며 남한의 의료협력으로 얻어진 의료 활성화 부분과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협력 부분)
- 향후 의료분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과 병원 운영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평양 정성제약 수액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액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합니까?
- 다른 NGO와 다르게 수자원 개발 사업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수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 수자원 관리의 부실함이 얼마나 심각했고(수인성질병 정도)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 수자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얻어진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까?
- 북한 당국이 수자원 개발 사업을 통해 수자원 개발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개발력을 가지려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장 최근 진행되었던 수자원 개발 관련 사업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빵, 분유 공급을 통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 변화 등의 모니터링은 할 수 있는지, 또한 분유 제조 공장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남한에 판매되는 콩 된장의 수량과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상품에 대한 남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 좀 더 비중을 높여야 할 사업 분야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남한 정부의 비 협조나 북한 정부의 규제, 자금적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바뀐 정권으로 인한 차후 기아대책의 사업 계획의 변화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3) 북한인권시민연합

- 귀 단체의 활동에 종교적 이념은 없는지, 없다면 어떤 이념과 목적성 하에 활동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근에 열린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어떠했는지(세계적 관심 정도나 지원 혹은 협력 정도, 북한이나 남한을 비롯한 타국의 반응), 계속된 회의로의 성과와 의의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북 NGO 활동 중 인권, 인도적 협력, 남북자·국군포로, 국내외 탈북 동포 구제 등에서 미흡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외탈북자 구호활동에서 제 3국으로의 이주 협조 중 어려움이나 위험성은 없는지, 북한 당국이나 주변국들로부터의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시오. (보안 문제가 얹혀있다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북 NGO들의 활동 방향과 성과, 한계점 및 한국 교계와의 선교적 협력 방안

- 한겨레 계절학교에서 탈북 학생들의 반응과 참여 정도, 성과와 보완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사회적응 지원활동에서 자원봉사단의 참여 정도와 수준, 그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남한 국민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해당 자료(설문 등)가 있다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에 비교하여 외국에서 보는 인식 정도와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캠페인의 내용이 단체의 설립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 온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열린북한방송

- 귀 단체의 구체적 방송 사업 목표와 이념을 설명해 주세요.
- 국제 방송 윤리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보안문제, 체제성 발언 등에 대한 수위 조절 등)이 많으실 텐데 실례와 함께 어떤 고충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귀 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북한 당국이나 남한 정부의 제재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정도 인지 실례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귀 단체에서 북한인권운동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 NGO와 결연하여 함께 사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야로 결연하여 활동하고 계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